

#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4월 17일(통권44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대통령의 조건 - 국정철학과 국가전략 -

이 용 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요 약

신간도서 『대통령의 조건-국정철학과 국가전략』 (이용환/2017년/정가 20,000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게 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담았다. 시대의 이념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안하면서 국정철학, 국가전략,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격변의 시대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이 중에서도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다른 정책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안보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시대정신을 읽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국민은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것이 유권자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이다.

## – 대통령 후보의 선택기준: 이념과 국정철학 그리고 공약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연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정책인지 아니면 표만을 의식하여 발표한 정책인지 걱정이 앞선다. 오늘날과 같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지도자는 대한민국이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관련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먼저 지향이념과 국정철학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가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준비 없이 정책만을 발표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19대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들은 먼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국민은 품격과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자기를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후보, 선공후사의 자세를 가진 정치인,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심과 시대정신에 투철한 정치지도자를 갈구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는 집권만을 위해 국민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거나 주어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이익을 앞세운 이익집단과 국민의 이익을 선별하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목소리가 큰 집단보다 침묵하는 다수를 생각해야 한다.

유권자는 국가를 이끌어 갈 사명감과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해안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질서에서 새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열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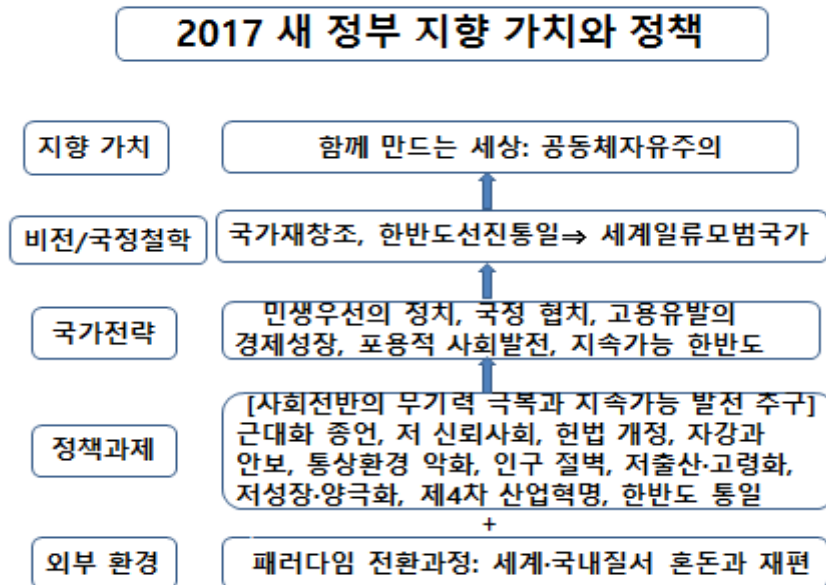
새 질서로 향하는 내외적 격변의 세기적 전환기 시대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하다. 격변의 시대에 요구되는 지도자 상은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결기의 리더십을 갖춘 후보여야 한다.

공약은 정직해야 한다. 정책은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시대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보여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정책보다 국민들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은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 – 정책구상 체계와 국가전략능력 향상과제

본고에서는 오늘의 현상과 미래 정책과제를 전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10대 키워드로 정리했다. 우선 근대화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열기위한 과제로 근대화 시대의 종언과 사회적 자본형성을 가로 막는 저신뢰 사회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현안과제로 새 시대의 기틀이 될 헌법 개정 문제, 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동맹에 의존한 자주국방의 한계와 자강 방안, 자국우선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나타나고 있는 통상환경 악화에 대한 원인과 방향을 탐색한다. 구조적인 과제로 인구절벽,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단기적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로 조명한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과제로 제4차 산업혁명,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조망하면서 방안을 제시한다.

10대 키워드에서 탐색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상하고 이념과 국정철학, 국가전략과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먼저 정책 체계를 아래와 같이 예시한다.



지향가치로 '함께 만드는 세상-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한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도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해야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비전과 국정철학으로 국가재창조와 한반도선진통일을 이루어 세계일류모범국가를 건설하는 데 두었다. 국가전략은 민생우선의 정치, 국정 협치, 고용유발의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발전, 지속가능 한반도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니즈를 반영했다. 다음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전략능력 향상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 【국가전략능력을 높이기 위한 10대 과제】

- 첫째 : 정신자본(精神資本, Mental Capital)과 사회적 자산을 중시한다.
- 둘째 :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혁명을 이룬다.
- 셋째 : 국정운영의 분권화와 민관협치(民官協治)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 넷째 : 시장,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기관이 잘하는 곳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기획과 전략 기능을 강화 한다.
- 다섯째 : 경제발전의 목표를 경제자유화와 공정경쟁에 기반 한 '성장'과 '고용극대화'에 둔다.
- 여섯째 : 학교의 자율성 제고와 지식생태계 혁신으로 인적자본역량을 높임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 일곱째 : 일하는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로 한국형 복지를 구축하여 소득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이중(二重)구조를 축소시켜 나간다.
- 여덟째 : 환경보호와 문화 창달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아홉째 : 통일한반도 시대를 열어 '세계 공헌국가, 세계 모범국가'로 거듭난다.
- 열째 : 현장주의, 역사주의, 제도주의를 소중히 하는 '국가전략'을 갖는다.

## –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정책보고서와 세미나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1. 입법·행정·사법 정책과제

-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의 정당개혁, 상설 당 조직이 공천과정을 관리하는 공천제도 개혁, 사전공약제도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혁명을 이룬다.
- 선진화법 개정과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한 생산적 국회로 탈바꿈한다.
-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과 같은 건물로 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정운영의 분권화와 책임총리, 책임장관 시대를 연다.
- 사법개혁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검찰개혁과 재판비용 경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판기회를 확대한다.

### 2. 국방외교통일 정책과제

- 국방정책의 기초를 방어 전략에서 방어와 공세전략으로 전환하고 자강에 기반 한 동맹과 군세전략을 펼친다.
- 반패권주의(反霸權主義) 천명 등 통일·평화 외교를 지향하며 동북아시아 다자간 경제 및 안보체제 구축에 힘쓴다.
- 북한의 정상국가화 유도와 통일 기반확충에 힘쓰되 통일 후 북한개발계획, 남북통합계획, 동북아개발계획을 담은 [한반도 미래구상]을 제시한다.

### 3. 경제정책 과제

- 경제난 타개를 위한 초당적 [비상경제대책기구]를 운영한다.
- 고용을 유발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월례 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전략산업화를 추진한다.
- 핀테크혁명에 부응하는 금융혁신, 국가부채 축소의 재정건전화와 함께 조세재정정책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 소유지분과 지배지분의 격차 축소를 대기업의 자기책임을 구현하며, 중소기업정책은 보호에서 성장 유인정책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창업과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4.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혁신, 농축산업, 해양산업

- 지속적인 산업의 녹색화 추진과 자원순환형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원개발, 국가차원의 에너지 통합관리를 통한 에너지 안보체제를 구축한다.
- 농축수산업은 ICT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통한 신성장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해양자원 보호와 함께 세계 5대 해양강국을 향한 해양산업을 발전시킨다.
-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자원 확보와 질 관리를 강화한다.

## 5.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

- '미래형 대입제도'와 '미래형 국가교육 개혁안' 마련을 위해 10년 임기의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프로젝트 수업, 무크(MOOC) 교육의 활성화, 진로교육 강화 등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 정부출연연의 대학 위탁경영을 비롯한 산학연 협력강화와 혁신생태계 중심지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 교육수요자의 생애별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한다.

## 6. 과학기술기반 구축

- 한국형 기술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
-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로 원천기술 확보와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개혁한다.

## 7. '신사회 복지정책' 5개년 계획 수립

- 라이프사이클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세워서 학습·고용·복지가 결합되는 한국적 복지모형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잡한 복지사업을 재설계하고 투명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으로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 8. 노사관계 정상화와 청년 및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 [미래고용노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노동규범을 마련한다.
-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비하는 노동시장체제 정비와 취약근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9. 건강한 공동체 문화와 인류의 세계화

- 전통·현재·미래가 조화되고 시대변화에 부응한 문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물질주의 문화를 넘어서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하는 '새 마음 운동'을 종교기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전개한다.
-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 공간(국가별 한국문화원)을 늘리고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지도자는 국민이 선택한다. 유권자는 지도자를 뽑고 나서 비판하지 말고 지도자의 자질과 국정철학 그리고 정책 공약을 면밀히 살핀 후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故) 위공 박세일 명예이사장의 유고인 '지도자의 길'에서 밝힌 지도자의 4대 덕목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는다.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적어도 4가지 능력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애민(愛民)과 수기(修己) 둘째는 비전과 방략(方略) 셋째는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넷째는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